

일본에는 많은 온천이 있지만, 그 분포는 대개 화산의 분포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온천의 대부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간 빗물이 화산의 지하에 있는 마그마의 영향으로 따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수는 적지만, 화산과는 관계가 없는 온천도 있다.

온천에는 지중의 지하수분포나 암석성분의 차이에 따라 용해된 물질이 달라 단순 온천(함유성분이 적은 것), 염화물 온천, 유황온천, 산성 온천 등 다양한 온천이 있다. 따라서 온천의 효능도 차이가 낸다.

온천의 즐거움 온천은 화산이 가져다 준 선물

오우누마강(大湯沼川)에 있는 천연족량(노보리베츠(登別)온천)

지고쿠다니(地獄谷)의 뿐이나오는 증기(노보리베츠(登別)온천)

칼럼

온천의 효용

온천에는 거기에 포함된 성분에 의해 요양·병 예방의 효과와 일상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연 속에 몸을 담그는 것에 의한 정신적인 효과 등 다양한 효용이 있다. 일본인은 전신욕조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을 좋아하여 「목욕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온천이용의 역사도 오래되어 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고사기에 이미 온천에 관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온천은 온천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직접, 열원으로서 동식물의 사육이나 재배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히트펌프에 의해서 배탕(排湯)에서 열을 뽑아 시설의 난방에 사용할 수도 있다. 소우베츠정(壯瞥町)에서는 농가가 온천을 이용하여 대형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주요 온천과 볼 만한 곳 안내



죠우잔케이(定山渓)온천



의해서 발견되었다. 삿포로시(札幌市)의 교외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휴양의 장소로서 예전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온천 위로는 토요히라강(豊平川)을 따라서 2.5 km의 산책길이 있다.



탄산수소염 온천, 유산염 온천 시코초호(支笏湖)온천

시코초호 호반의 유일한 취락이다. 공원처럼 후에 계획적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주변의 수림과 어우러져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온천은 1974년에 불링(boring)에 의해서 용출 한 것으로 온천의 성분은 탄산수소염 온천이다. 시코초호 야조의 숲(→p19)에서 가깝다. 근처의 치토세강(千歳川)에 놓여있는 붉은 철교는 예전 토마코마이(苦小牧)의 오지제지회사 전용철도가 달리던 교량으로 훗카이도(北海道)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 된 철교이다. 또한 시코초호 북쪽 호안에는 이 외에 마루코마(丸駒)온천이라는 온천이 있다. 온천성분으로는 탄산수소염 온천, 유산염 온천.



이토우온천

다양한 온천

노보리베츠(登別)온천

일본의 대표적인 온천지의 하나. 예로부터 아이누에게 알려져 에도시대 말기에는 하코다테(函館)의 관리 등도 탕치(湯治)에 사용해 왔다. 1일 1만 톤이 넘는 온천의 양과 유황 온천, 황화수소 온천, 합천 온천 등 11가

지 성분의 온천이 있어 다양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그 때문에 다양한 온천 요양의 연구가 근대 의학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온 장소이기도 하다.

온천마을 가까운 곳에는 지금도 격렬하게 화산가스나 열탕을 분출하고 있는 지고쿠다니(地獄谷)와 오오유누마(大湯沼)가 있다. 오오유누마에서 흐르는 하천가에는 벤치가 있어 천연 족탕을 즐길 수 있다.

염화물 온천, 탄산수소염 온천 토우야호(洞爺湖)온천

메이지 말기의 우스산(有珠山) 분화로 온천이 용출하여 호반의 온천마을로서 발전해 왔다. 우스산과 함께 살아가는 마찌즈쿠리(마을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p8~9). 온천의 질은 염화물천, 탄산수소식염천, 수십 개에 수탕(手湯), 족탕의 설비가 있다. 또, 니시야마(西山)화구나 콘피라(金比羅)화구의 유보도를 산책해 보면 2000년 분화의 흔적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염화물 온천

죠우잔케이(定山渓)온천

온천마을을 형성하는 규모의 큰 온천으로 풍부한 양을 가진 염화물 온천이다. 1866년에 오카야마(岡山)의 승려, 죠우잔(定山)에

유황 온천 기타유자와(北湯沢)온천

토우야호(洞爺湖)의 동쪽, 오사루강(長流川)과 접해 있는 온천으로 온천 성분은 유황 온천이다. 온천에서부터 계류가에 산책길이 있고, 온수가 흐르는 물을 맨발로 보행할 수 있는 족탕이 있다. 또, 근처에 스카장도 있다.

라듐 온천

카루루스온천

노보리베츠(登別)의 약 8 km 북방에 있는 유산염 온천. 1957년에 훛�카이도(北海道)에서 최초로 지정된 국민 보양 온천지로 지금도 탕치장의 분위기가 남아 있다. 카루루스라는 이름은 라듐을 함유하는 온천성분이 체코의 유명온천 칼스바드(Karlsbad; 현Karlov Vary)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축제와 이벤트

쇼우와신잔산(昭和新山) 국제눈싸움

눈뭉치를 서로 부딪치는 단순한 놀이를 게임화 하였다. 해마다 참가팀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핀란드에서 유럽 선수권이 열리기까지 되었다.
(2월 하순)

시코초호(支笏湖)빙도(氷濤; 얼음물결)축제

주민이 손수 만든 지역축제에서 치토세시(千歳市)를 대표하는 이벤트로 성장하였다. 호반에 수많은 빙상(氷像)이 떠서 물결을 이루며, 야간에는 라이트업을 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1월 하순~2월 중순)

노보리베츠(登別)온천 귀신축제

1년에 한 번, 지고쿠다니(地獄谷) 지역의 가마 뚜껑이 열려, 염라대왕이 나타난다. 염라대왕 수레와 귀신 가마를 온천 마을에 계속 보내는 양기 왕성한 축제.
(8월 하순)